믿음과 희망주는 고성군의회

| 2025. 4. 17.(목) 10:00 |
| --- |
|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 - 베이비붐 세대 귀향 및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감소 위기 해법 모색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대가면 지역구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 및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 인구는 1964년 13만 6천여 명을
정점으로 줄곧 감소해,
2022년 기준 5만 1,642명이던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4만 7,65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고성군의 경제 활력 저하는 물론,
지역 사회의 존속 가능성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 및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감소 위기 ’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귀향·귀촌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책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나,
정작 귀향 가능성이 큰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기초조사나 수요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향우회, 온라인 플랫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귀향 의사와 정착 수요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자료를 넘어
정착 희망 지역이나 주거 형태,
기대 일자리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설계의
기반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귀향 및 귀농·귀촌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재정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창업 자금,
주택 리모델링 비용, 정착 지원금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도시에서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는
상생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빈집을 주거 자원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난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고향 집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마을 곳곳에 빈집이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 군 내 빈집은 1,084채로
경남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방치된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정비해 귀향 및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집수리 지원, 빈집 정보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임대주택이나 셰어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는, 귀향 및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전문화와 기능 통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된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농업정책과 직원 1명이 본연의 업무와 병행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귀향이나 귀농·귀촌 관련 문의가
들어와도 단순히 전화로 응대하거나 다른 부서로
연결해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담 인력 부족은 물론,
전문적인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귀향 및 귀농·귀촌 관련 업무가
인구청년추진단, 건축개발과, 경제기업과,
농촌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정착을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문의하고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통계 기반의 정확한 상담과 실질적인 안내가
가능한 ‘원스톱 귀향·귀농·귀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능을
연계·통합한 전담 지원센터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생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귀향이나 귀촌을 고민할 때 의료, 교통, 문화 같은
생활 기반은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제2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고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부모님의 온기가 남아 있는 고향에서
다시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고성군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